

IBK MAGAZIN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Vol. 17 / 2020. Spring

SPECIAL COLUMN

2020년 한국 경제
2.4% 성장을 위한 조건은?

THE INTERVIEW

5G 기술을 선도한다는 건
5G 기반 산업에서 앞서간다는 것!

WM CLASS

아는 만큼 보인다
2020년 주택 시장 전망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상치 못했던 블랙스완이 등장한 것이다.

점점 꼬여만 가는 경제 상황을 풀 방법은 코로나19의 종식뿐이다.

꽃 피는 봄이 오기 전에.

WORDS. 박영화

발행일

2020년 3월 5일

Publish

IBK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Planning & Design

경성문화사 02. 786. 2999

Print

경성문화사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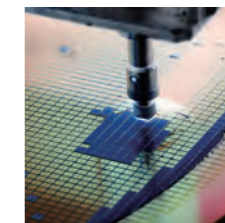
Contents

2020 — SPRING

Vol. 17

04	SPECIAL COLUMN	2020년 한국 경제, 2.4% 성장을 위한 조건은?
08	GLOBAL REPORT	코로나19, 한국 경제에 미중 무역분쟁 보다 큰 상처
12	ISSUE & FOCUS	513조 슈퍼예산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16	THE INTERVIEW	5G 기술을 선도한다는 건 5G 기반 산업에서 앞서간다는 것!
20	RICH KNOWHOW	상속세와 증여세, 똑똑한 절세방법
22	WM CLASS	아는 만큼 보인다! 2020년 주택 시장 전망
26	INVESTMENT	2020년 2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30	CULTURE SPACE	예술의전당에서 봄을 맞이하다
34	LIKING TRAVEL	한없이 뜨거운 이 도시의 3월, 브라질
40	CONSOLATION OF BOOK	열정이 무엇인가요? <L부인과의 인터뷰>
42	IBK FUND	IBK 추천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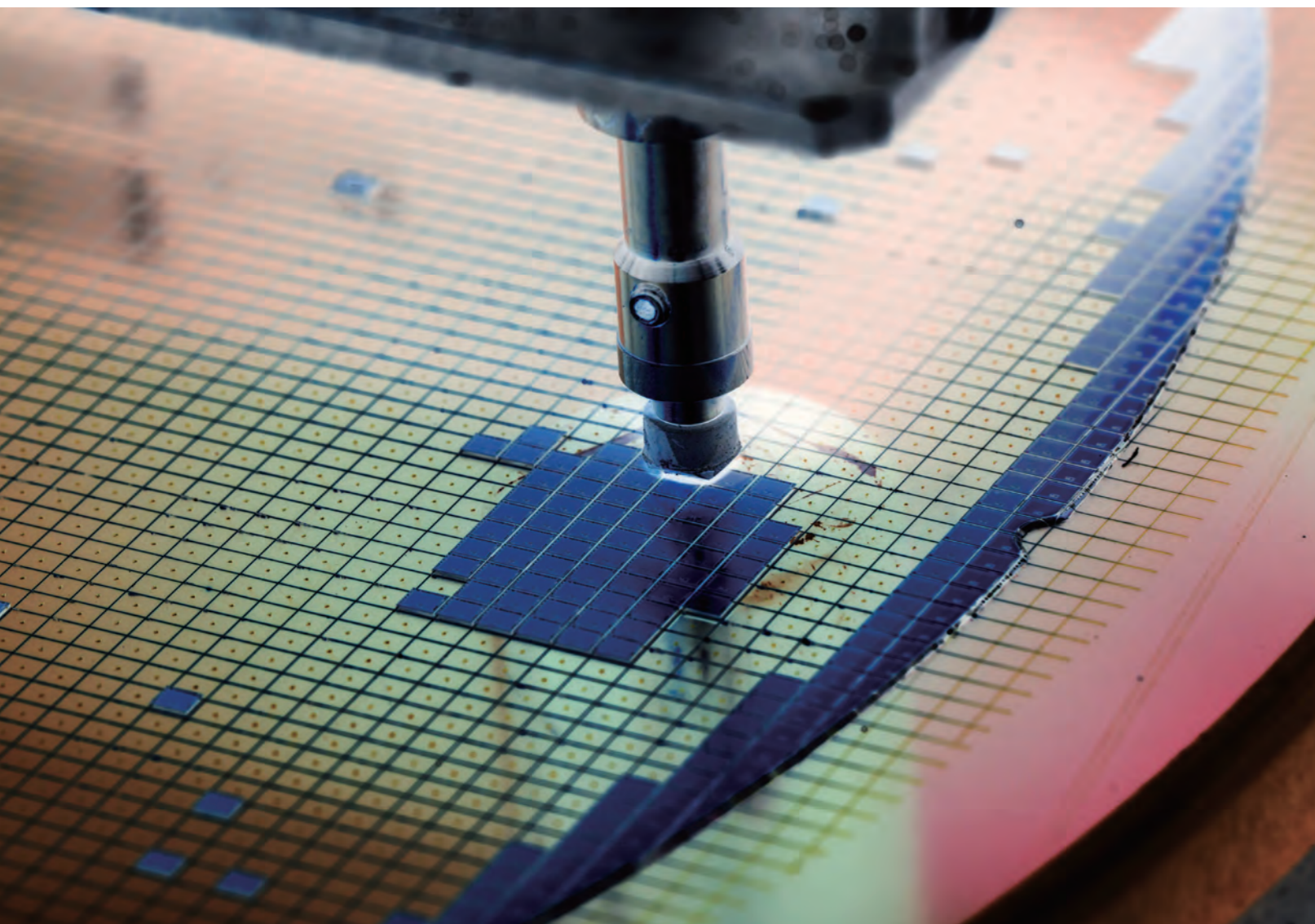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 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 경제, 2.4% 성장을 위한 조건은?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올해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회복을 전망한 것일까.
과연 우리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WORDS.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진 투자컨설팅 대표



지난 2019년, 가까스로 2.0% 성장을 맞추며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잠재성장률 부진도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만큼은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자신감에 대해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와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는 조금은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 중에는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1.8~1.9%를 제시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1.8%와 2.4%. 물론 두 수치 모두 그야말로 전망치이긴 하지만 격차가 꽤 큰 것이 사실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크게 3가지 측면의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는 반도체의 회복, 둘째는 중국을 통한 내수 부양기대, 그리고 셋째는 기저효과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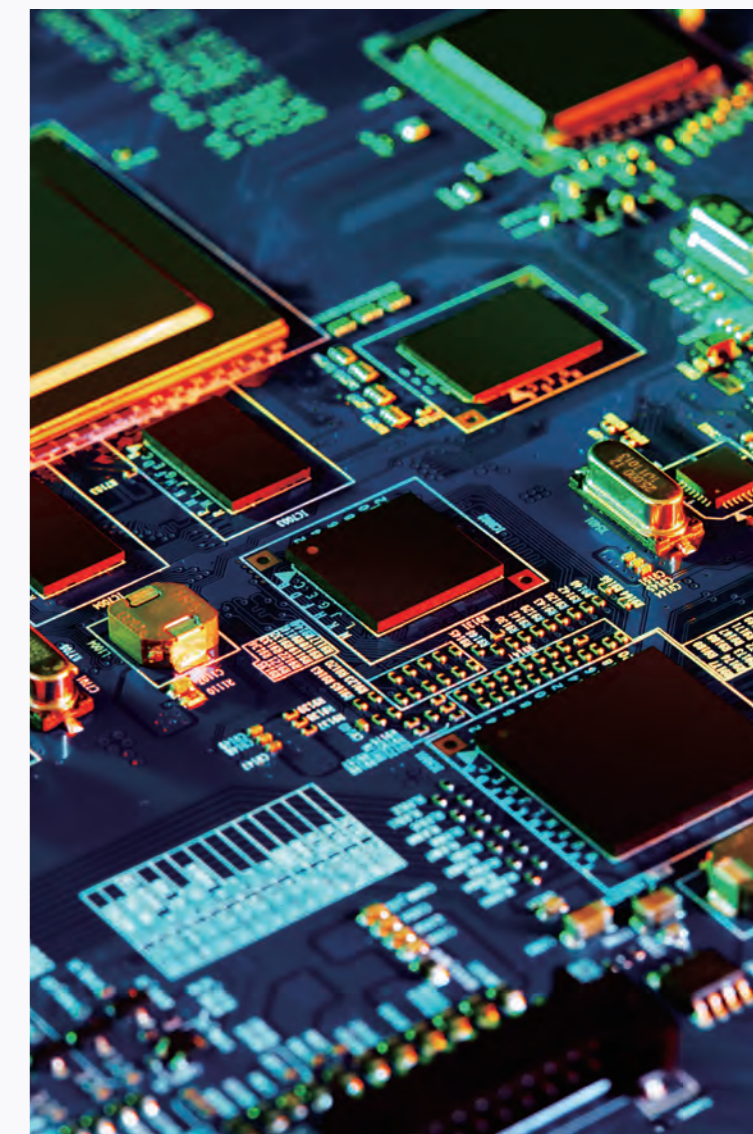
2.4% 성장을 위한 첫째 요건, '반도체'

첫째는 바로 '반도체'다. 정확히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다. 지금 세계의 경제연구소와 글로벌 IB(투자은행)들은 한 목소리로 "2020년엔 반도체 경기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를 보면 급반등은 아니지만 더 하락하지 않고 버티면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살아난다면 한국경제는 수출이 무조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40%에 달하고, 수출의 20%는 반도체와 연관이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우리 연간 수출은 12개월 연속 추락하며 전년 대비 10.3%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3.9%) 이래 10년 만의 두 자릿수 감소폭이다. 눈치챌겠지만 이런 수출 급감에는 반도체 부진이 치명적이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위축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때문이었던 것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D램과 낸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급락에 반도체 수출은 25.9%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여기저기서 모두 반도체가 살아난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을 봐도 6조 원대까지 추락했던 영업이익이 어쨌거나 7조 원 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반도체가 좋아지면 수출이 좋아지고, 2019년 생산 부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투자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한국 경제 수출이 회복되고, 수출이 살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수출 호황-내수호황'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성공패턴도 작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2.4%라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가 될 것이다. 1월 주식시장은 이런 전망을 확신하며 움직였다. 삼성전자를 보면 지난 2017년 말 액면분할 당시 주가를

Semiconductor (반도체)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40%에 달하고, 수출의 20%는 반도체와 연관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3.9%) 이래 10년 만의 두 자릿수 감소폭이다.





지난해 말부터 여기저기서 모두 반도체가 살아난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을 봐도 6조 원대까지 추락했던 영업이익이 7조 원 대로 올라왔다.

넘어 6만 원도 훌쩍 넘었고, 코스피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등의 힘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12% 넘게 상승했다.

유커의 귀환과 기저효과

2.4% 성장의 둘째 요건은 중국을 통한 내수부양 기대다. 혹시 이 대목에서 “아니, 중국을 통한 수출증대는 이해가 되지만, ‘중국을 통한 내수부양’ 이게 무슨 말이야?”하고 반문할 수 있다. 내수는 단어 그대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3~2015년 상황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 관계는 참 묘하다. 일단 수출은 매우 밀접하다. 2019년 말 기준 수출에 있어 중국 비중은 25%에 육박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중국은 유커(游客, 중국인 관광객)를 통해 우리 내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지난 2013~2015년을 보면 내수 관련 소비지표가 나쁘지 않았다. 그럼 당시 우리 국민들의 씬씀이가 매우 컸던 것일까. 그리고 2019년 내수부진은 국민들이 갑자기 소비를 확 줄여서 나온 것일까. 그렇지 않다.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씬씀이가 크게 줄어든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왜 내수 관련 지표는 확 무너진 걸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엔 유커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즉, 유커들이 한국에 찾아와 엄청난 소비를 하면서 국내 소비지표를 버텨주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2016년부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하면서 유커와 유커의 소비는 폭감하기 시작했고, 관련된 국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종에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풀리고, 급기야 시진핑 중국 주석까지 상반기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한한령을 완전히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유커를 통한 내수 부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에 매수가 몰렸던 것도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는 기저효과다. ‘기저효과’란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수치에 따라 지표가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비교시점 상황이 최악이었다면 현재(기준시점)는 조금만 좋아져도 수치는 아주 좋게 나오고, 반면 비교시점 수치가 월등하게 좋았다면 지금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아도 통계치로 보면 상당히 나쁘게 나온다. ‘경제성장률’이란 건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성과로 표시된다. 따라서 최악이었던 2019년을 감안하면 2020년은 실제 경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엄밀히 말해 경제성장에 앞서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안전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 국민들의 안전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



경제 성장보다 국민들의 안전이 먼저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연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초대형 악재를 맞았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가 세계 경제에서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점이 굉장히 치명적이다. 결과적으로 올 한국 경제 성장률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만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은 우리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악영향을 준다. 지난 2019년을 보면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재정정책)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런데, 올해 재정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는데 더 큰 비중으로 투입돼야 하기에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저효과마저도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엄밀히 말해 경제성장에 앞서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안전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 국민들의 안전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 올 1분기에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 2분기 메르스 사태 때를 돌아보면 당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50~60% 폭감하는 등 충격이 매우 컸다. 정부는 방역과 함께 내수시장에는 소상공인, 수출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에 위한 무역금융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소비에는 일종의 ‘보상효과’가 작용해, 이런 악재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간 긴축했던 소비를 단기간에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번 악재를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 부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WIN CLASS

코로나19, 한국 경제에 미중 무역분쟁보다 큰 상처

Corona virus disease 19



연초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이어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중국과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3년에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창궐해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는데, 이번 코로나19의 파장은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 경제는 수출이나 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쓰나미가 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진행형인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는 물론, 연말 미국의 대선 등 다른 대외 리스크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최대 리스크로 주목받는 이유다.

WORDS. 이해준 헤럴드경제 선임기자



중국인들은 세계 주요 관광지를 붉은 깃발로 뒤덮으면서 관련 업계의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상 강화로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가공할 만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기침하면 세계 경제는 중병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이 사스보다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전염력이 사스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도 있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유행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세계 경제가 중병을 앓는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실제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03년 1조 6,410억 달러로 6위에 머물렀지만, 2019년에는 13조 6,080억 달러로 8.3배 급증하면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4.3%에서 16.9%로 3.9배 높아졌다. 전 세계 수출·수입 금액 중 중국의 비중은 2003년 5.3%에서 2018년 11.7%로, 민간소비 비중은 3.1%에서 10.8%로 각각 2~3배 증가했다.

금융시장의 위상 변화는 훨씬 극적이다. 국제금융센터 분석을 보면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3년 1.6%에서 2018년엔 9.2%로 5.8배 높아졌고, 채권 시장 비중은 같은 기간 0.6%에서 12.6%로 무려 21배나 향상됐다. 중국인들은 세계 주요 관광지를 붉은 깃발로 뒤덮으면서 관련 업계의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여행자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2003년 2.4%에서 2017년 9.1%로 3.8배 높아졌고, 여행 지출금액 비중은 2.7%에서 17.8%로 6.6배 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상 강화로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가공할 만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호주국립대의

워릭 매किन 경제학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충격이 사스 당시 400억 달러의 3~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는 사스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이 500억 달러였다면 이번의 손실은 7배가 넘는 3,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추정도 사태 장기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03년 사스 창궐 당시엔 중국과 홍콩 등에서 8개월 동안 8,09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9.6%인 774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첫 보고 이후 1개월여 만에 사망자가 사스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등 무서운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다.

벌써 멀어지는 올해 2%대 성장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휘청이면서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항공과 숙박 등 여행업계는 빈사상태에 빠졌고,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과 자영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 차질로 자동차 생산공장이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 부문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인한 파급 영향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5,423억 달러)의 25.1%(1,362억 달러)가 중국으로의 수출이었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1,750만 명)의 34.4%(602만 명)가 중국인이었다. 한국과 중국 간 제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은 더욱 긴밀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53억 4,000만 달러)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9.2%(15억 6,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중국이 이를 종식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의 파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외 기관들은 이번 사태로 중국의 성장률이 0.5~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번 사태가 1분기에 진정될 경우 올해 중국 성장률이 0.5%포인트, 2분기까지 지속되면 1.0%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며 '더블딥(재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무라 인터내셔널은 올 1분기 중국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6.0%)보다 2.0%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효과(-0.4%포인트)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이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2.5%에서 1.5%로 대폭 낮췄고,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2.2%에서 2.0%로, JP모건은 2.3%에서 2.2%로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이 중국보다 한국과 대만이 더 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높은 대중 의존도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내 생산이 빠르게 정상화될 경우 1분기 중국 성장률이 0.5~1.0%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한국은 0.8~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국의 생산활동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 중국 성장률이 1.0~1.5%포인트, 한국은 1.1~1.4%포인트 하락하고,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중국 성장률이 1.5~2.0%포인트, 한국은 1.4~1.7%포인트 각각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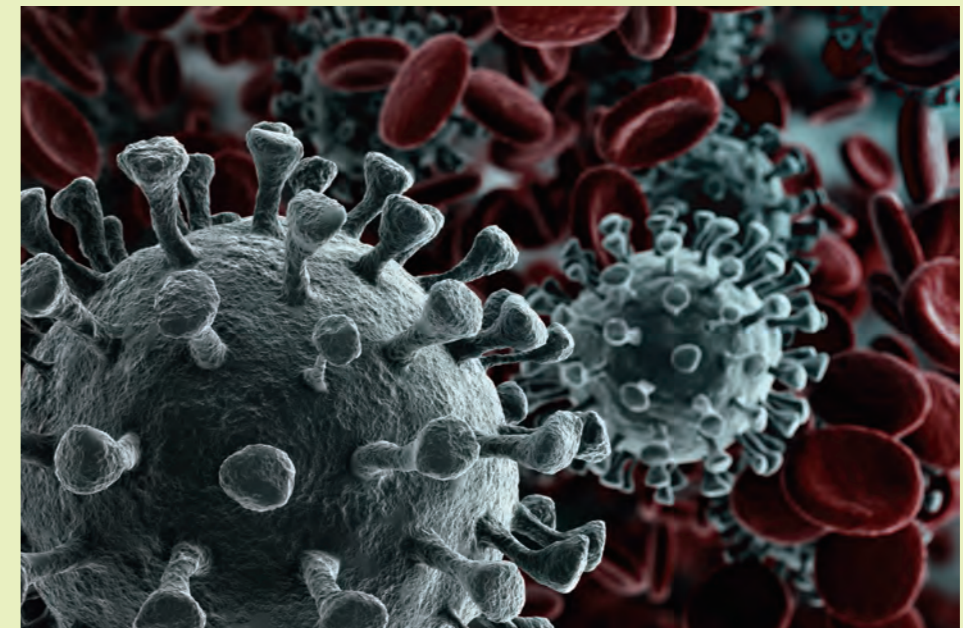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더블딥' 가능성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며 '더블딥(재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통적으로 1분기에는 정부 재정지출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다. 지난해에도 재정지출 효과가 감퇴하면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4%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2%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연말에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올 1분기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국내 투자기관들은 올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0.7%로 추락할 것이라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가 올해 한국 경제가 당면한 다른 모든 대외 리스크를 함몰시키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일시적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사스나 메르스 등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쇼크가 실물경제나 금융 등 시스템상의 문제로 번지지 않을 경우 경제도 빠르게 정상 경로로 돌아가는 속성을 보였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정점을 지나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경우 경제활동도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경제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화할 경우 지금까지의 예측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제 체력이 약화된 데다, 부동산 시장 위축과 정부 재정여력 약화 등 구조적·경기순환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역사회 전파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진정 여부에 올해 한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는 셈이다. WIN CLASS

코로나19가 올해 한국 경제가 당면한 다른 모든 대외 리스크를 함몰시키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일시적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13조 슈퍼예산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최근 국내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이 같은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기반하여 513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초(超)슈퍼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WORDS.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2020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약 513조 5,000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5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에 이르는 셈이다. 이 때문인지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연일 5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슈퍼예산'이라고 지칭하며,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하반기 상황을 보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홍콩시위가 격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원유시설에 대한 드론 폭격까지 발생해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에도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수출 활로 모색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하방리스크 억제를 위해 500조 원의 예산 편성은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등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인 재정투여가 예상되는 복지 등의 예산 증액은 올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 재정의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2020년 국가 예산을 바라보는 첨예한 견해차 속에서 2020년 예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20년 예산, 어디에 얼마만큼 배정되었나?

2020년 예산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예산 부분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여러 산업들의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산업,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의 분야에 전년 대비 약 47% 증가한 4조 7,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20년에 증액된 분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예산 역시 전년 대비 17.3% 오른 24조 1,000억 원을 편성해 관련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던 기존 전통산업들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 보급하고 스마트산단을 10개소 조성하는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 이와 같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27.5%(18조 8,000억 원→23조 9,000억 원)로 12대 예산 분야 중 가장 높다.

이뿐 아니라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대두된 바 있는 부품, 소재, 기계장치 분야에서의 자생력을 위해 2019년도에는 8,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오른 2조 1,000억 원을 편성하였다. 물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예산 편성이긴 하지만 부품, 소재, 기계장치 분야에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종자돈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좀처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내수경제의 난관을 수출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전통적인 수출 시장을 넘어 그동안 거래 규모가 작았던 고위험 수출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진출할 경우 관련 금융 지원을 4조 2,000억 원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제때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을 20조 원 이상 보강한다.

일자리 부분에서는 가장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 토목 부문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 예산을 크게 증액하였다. 철도·도로 개량이나 복합 문화·여가 시설 건립과 같은 생활 SOC 확충예산을 전년 대비 2조 4,000억 원 증가한 10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가 크게 둔화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상에서 나열한 부분은 새로운 10년 내지 20년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의구심을 보이지는 않는 분야이다. 물론 세부적인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효율성과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경제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들은 상당 부분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500조 원이 넘는 예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목은 다른 데 있다. 정부는 전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1.3% 대폭 오른 25조 8,000억 원을 배정하고, 해당 예산을 통해서 17만 개 가까운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예산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부분을 보면, 돌봄·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9만 6,000개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1조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다.

일자리 부분에서는 가장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 토목 부문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철도·도로 개량이나 복합 문화·여가 시설 건립과 같은 생활 SOC 확충예산을 10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우리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터전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구직자(약 20만 명)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25만 원→30만 원)과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실시(2,000억 원→4,000억 원) 등 고령화 대응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에서 나열한 일련의 예산들은 일정부분 지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관련 분야의 예산의 경우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들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에 발목을 잡을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복지의 영문 명칭을 잘 떠올려보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복지는 영어로 Entitlement라 불린다. 즉, 타이틀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타이틀을 부여해 준 것을 다시 빼앗기에는 더욱 어렵다는 복지 분야의 특성을 내포한 어원일지도 모른다.

2020년 예산 편성의 당위성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성과에 달려 있다

우리 모두 결국 '노인'이며, 우리도 잠재적 재취업자 내지 예비 창업자들이다. 즉, 복지예산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우리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터전인 것이다. 문제는 지속가능함이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최근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실업 등으로 고생 받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등한시한 결과다. 결국 우리 경제가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사회적으로 수긍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어, 법인세, 소득세 등 새로운 세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다.



5G 기술을 선도한다는 건 5G 기반 산업에서 앞서간다는 것!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2018년 12월 새로운 이동통신 시대가 시작됐다. 모바일 인터넷 세상을 가져온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가 2011년 상용화된 이후 7년 만에 또다시 새로운 통신환경이 등장한 것이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에게 물었다. "5G 시대의 도래로 우리의 삶과 경제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라고.

WORDS. 박영화
PHOTOGRAPHS. 정우철

Q. 5G를 빼놓고는 우리 산업이 당면한 이슈들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데요, 5G가 뭔가요?

A. 5G는 통신환경의 변화를 뜻합니다. 1세대 이동통신인 1G는 처음으로 무선 전화 통화를 가능하게 했고 2G는 문자 메시지를, 3G는 인터넷 사용을, 4G는 폰으로 동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와 비교했을 때 5G의 가장 큰 특징은 초고속, 초저지연성, 초연결입니다. 5G의 최대 속도는 20Gbps으로 4G보다 20배가량 빨라서 빅데이터를 끊임 없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가 2018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는데, 어떻게 최초의 5G 상용화 국가가 된 건가요?

A. 최초의 5G 상용화 국가가 된 건 상륙작전처럼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5G 상용화를 앞당기려고 하자,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에 서비스 개통 일정을 앞당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5G 스마트폰 출시, 서비스 이용약관 마련 등 상용화 준비가 예상보다 조기에 완료된 상황에서 5G 상용화 시점을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공감했던 거죠. 일반적으로는 개통이 안 되는 밤 11시에 마치 상륙작전처럼 5G 1호 가입자의 스마트폰이 개통됐습니다. '최초의 5G 상용화 국가'임을 세계에 알린 겁니다.

Q. 5G가 상용화되고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요?

A. 5G 상용화를 서두른 탓에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5G가 상용화된 지 한 달 만에 약 26만 명의 가입자가 가입한 성과도 있었지만,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의 설문조사 결과, 5G 이동통신



소비자 상담 건수의 89.3%가 '5G 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나타난 거죠. 5G 기지국이 5만 개 이상 구축됐지만 커버리지 한계로 5G를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았고, 5G가 연결되더라도 LTE(4G) 대비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도 없었습니다. 5G 때문에 기존 LTE 속도가 느려졌다는 불만도 상당했지요.

Q. 5G 기술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A. 5G 기술은 디지털로 전환되는 속도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 사업의 기반기술'인 거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디지털 경제지도』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VR) 등의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확대·적용되면서 산업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기술이 뒤흔드는 혁신)을 가속화 시킬 기술이 5G인 것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홀로그램,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3D 영상 등의 빅데이터가 원활히 교환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본격적으로 5G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A. 5G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해도 통신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통신 및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듯이, 자율주행차도 통신서비스를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인프라와의 통신(V2X), 다른 자동차들과의 통신(V2V)이 원활해야 합니다. 거대한 빅데이터가 원활히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5G가 기초했을 때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병원도 마찬가지지요.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체온, 운동량, 심박동수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쇼핑 환경에서는 온라인쇼핑이지만 가상·증강현실 기술로 오프라인 매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마치 오프라인 매장 안에 있는 것처럼 하거나, 온라인 환경하에서도 옷이나 안경을 써보고 구매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장을 매번 찾아가지 않아도 기온, 습도, 바이러스 등의 작황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팜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앞으로 이동통신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A. 이동통신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5G는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5G 시장 규모는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2%에서 50% 수준으로 증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속도가 더 빠를 것이며, 2026년 한국의 5G 시장 규모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5G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을까요?

A. 첫째, 5G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줄여나아가야 합니다. 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에만 몰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5G 품질 안정화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동통신사는 5G 기지국 장치를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품질이 전제될 때 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5G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기기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3D 영상을 소비자들이 보려면 3D 기술로 촬영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야 하겠죠.



5G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체온, 운동량, 심박동수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쇼핑 환경에서는 온라인쇼핑이지만 가상·증강현실 기술로 오프라인 매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옷이나 안경을 써보고 구매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 다양한 사업 기회가 열리니 '최초'의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5G 기반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으로 화장품 산업이 집적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피부색의 인종들이 작은 영토 안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화장품이 개발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는 테스트 베드(Test Bed)로서 상당한 유인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5G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및 기기 등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는 본거지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해외직접투자가 집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G가 가져올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을 포착해 나가야 합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개발, 원격진료 서비스 출시, 모빌리티 플랫폼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스마트 홈서비스 고도화, 체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쇼핑환경 조성, 초실감형 교육콘텐츠 개발 등 유망한 신산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5G를 선도한 만큼, 5G 기반의 신산업들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올해 6G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요. 6G 기술의 개발 상황은 어떠한가요?

A. 올해 5G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 업계 전문가들은 앞선 세대의 이동통신 기술 주기를 봤을 때 6G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개발(R&D)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현재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은 이미 6G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6G 상용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기술을 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으니 6G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IN CLASS



상속세와 증여세,

똑똑한 절세방법

여러 종류의 세금 중에서도 자산가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세금은 단연코 상속세와 증여세다. 애써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최대한 많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 세율은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이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200억 원대 자산가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내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자녀들 몫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르게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WORDS. 이은하 세무사

Inheritance tax, Gift tax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 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세는 상속인 몇 명이 나누어 갖는지에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쪼개서 나누어주면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한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총 세금이 줄어든다.

상속세? 증여세? 제대로 알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공짜로 재산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었다면 증여세,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즉, 증여세나 상속세라는 재산을 받는 시점에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生死)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느냐'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사망한 김 씨의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라면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30억 원에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상속세를 구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예를 들면 김씨가 자녀 1, 2, 3에게 각각 10억 원 씩 총 30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자녀 1, 2, 3이 각자 증여받은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를까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 상속세는 상속인 몇 명이 나누어 갖는지에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쪼개서 나누어주면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한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총 세금이 줄어든다. 또 다른 차이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다. 상속공제의 종류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다. 한편, 증여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라면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친족은 1,000만 원이 공제된다.

이 밖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하는 것은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한테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하면 되는 등 비교적 간단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은 다소 복잡한 편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세율 구조 분석을 통해 알아본 절세방법

증여세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그럼 10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대신 매년 1억 원씩 10년 동안 증여하면 10% 세율로 증여세를 내면 될까? 그렇지 않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동일인이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라면 그 배우자도 포함한다.

상속세

상속세는 어떨까? 생전에 증여를 모두 해버리고 사망할 때 상속재산을 조금만 남겨 놓는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세법에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자(예를 들면,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즉, 죽기 10년 전에는 증여를 해야 상속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WIN CLASS



아는 만큼 보인다!

2020년 주택 시장 전망

두 명 이상 모이는 자리라면 대화의 소재는 주로 '아파트값'이 아닐까. 요즘치는 주택 시장과 쉽게 이뤄지지 않는 내 집 마련의 꿈. 문엔지니어링 직원들과 함께 알아봤다. 2020년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WORDS. 박영화
PHOTOGRAPHS. 황원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택 시장 전망

“기업의 발전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주도하며 치열한 기술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헌일 회장의 생각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가 진행된 이날도 서비스 정신, 경제·금융 등 다양한 교양·정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계속된 수업에 지친 기색도 보였지만,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의 주제를 들은 직원들의 눈빛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다.

이번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 주제는 바로 ‘주택 시장 전망’.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 중인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조성철 과장이 강의를 시작했다. “주택 시장 전망을 알기 위해선 먼저 공급과 수요의 원칙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수요는 인구증감, 개발호재, 부동산규제, 경기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문엔지니어링 직원들이 주로 사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내 집 주변의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한 정보는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다. 조성철 과장은 도로 확충, 전철 개통 등 집값 상승 요인 등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지역별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파주 지역은 집값 상승 요인이 있을까요?”, “세종 지역은 투자할 만한 곳일까요?”, “구도심은 투자 가치가 떨어지나요?” 등 문엔지니어링 직원들은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손을 들어 궁금한 것들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을 들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가 끝난 뒤 직원들에게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를 들은 소감을 물었다. “관심 지역이었던 세종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했어요”, “2024년 계통 예정인 신안산선 얘기가 흥미로웠어요”, “신혼부부를 위한 신도시 정보가 도움되었어요” 등 대부분의 직원들은 호의적인 대답으로 강의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2020년 부동산 투자 전략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소 안정적 흐름을 보이던 주택 시장이 2019년 5월 들어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외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밀고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우선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시장은 대출이 불가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공시가격 현실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조건 강화, 1주택자 갈아타기 제한 및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조건 등으로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조성철 과장의 말에 따르면 서울매매거래지수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27.3%로 12월 16일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41.3%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의 강력한 대책,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이란의 지정학적 위기,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올해 주택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문제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대출규제 등이 유지돼 시장에 공급(매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엔지니어링(주)

www.mooneng.co.kr

IBK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
고객사

4차 산업혁명

ICT Provider

직원과 함께 쓴 30년의 역사

문헌일 회장



한 기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걸어온 시간을 이해해야 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점칠 수 있다. 끊임없는 혁신과 자기계발을 통해 ICT 융합기술 구축에 앞장서 온 문엔지니어링. 문엔지니어링의 문헌일 회장을 만나 30년의 역사와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나아갈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WORDS, 박영화
PHOTOGRAPHS, 황원

우여곡절을 겪으며 더 탄탄해지다

1990년, 문헌일 회장은 ICT 구축을 위한 컨설팅·설계·감리 전문기업인 문엔지니어링을 창립했다. 우수한 인력과 전문기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컨설팅 및 설계 부문 2,500여 건, 감리 부문 450여 건, 세계 25개국에 기술 수출 등의 실적을 올리며 명실상부 ICT 분야 최고의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0년 3월에 창립했으니까 꼭 30년이 흘렀네요. 1997년에 외환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당시에 저희 회사도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큰 고비였지요. 그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함께 해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문엔지니어링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엔지니어링 문헌일 회장은 IMF 당시의 회사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행히 경기가 회복되면서 회사 상황도 점점 좋아졌다고. 현재는 국내 최고의 ICT 분야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우뚝 서 있다.

직원이 있기에 회사가 존립한다

그동안 문엔지니어링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정보통신 분야, 차세대 항공감시 멀티미디어시스템 구축 타당성 및 기본 설계, 부산청 국토 ITS구축 설계, 대구혁신도시 및 테크노폴리스 U-City구축 설계,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통신분야 실시설계, 비행관제 시뮬레이터 구축사업 등 4,000여 건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F/S용역, 운두라스 차세대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해외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0년 동안 한길만 걸어왔습니다. 문엔지니어링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인재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최고 브레인인 공학박사 및 정보통신기술사 50여 명, 엔지니어링 전문기술자 300여 명 등의 맨파워는 문엔지니어링의 최고 강점이다.

“저는 직원이 있기에 회사가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사 내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등을 마련했고, 직원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야구팀, 산악회 등 사내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회장은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현하고자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은 가족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보내 주고 있으며, 한강 유람선에서 진행한 창립 20주년 행사에 100여 명에 이르는 퇴직 직원을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기도 했다.

든든한 사업 파트너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과 인연이 시작된 건 문엔지니어링이 구로디지털중앙지점이 있는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온 2011년부터다. 당시 구로디지털중앙지점 김영한 부지점장은 문엔지니어링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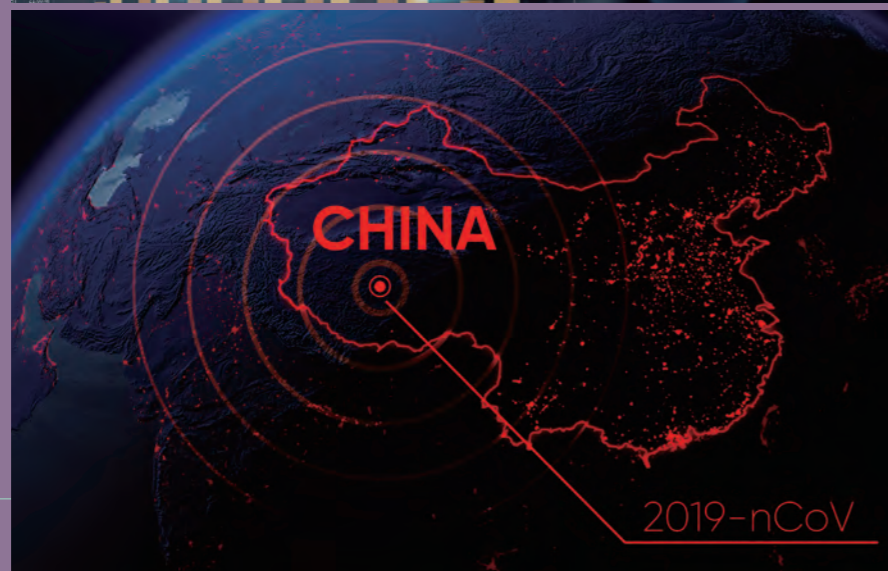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운영 자금입니다. 위기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구로디지털중앙지점과 그러한 믿음이 잘 형성된 것 같습니다.”

소탈한 웃음으로 IBK기업은행과의 인연을 말하는 문헌일 회장. 그의 말속에서 IBK기업은행에 대한 강한 신뢰가 느껴졌다. 치열한 경쟁과 변화만을 좇는 수많은 기업들 속에서 문엔지니어링은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하며 그들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WIN CLASS

2020년 2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20년을 앞두고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이 2019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나타났다.

WORDS.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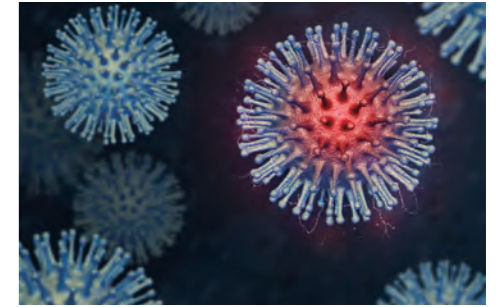
리스크와 투자

경제 및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노출된 정도를 '리스크'라고 한다. 리스크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긍정적인 상황도 내포하고 있다. 즉 긍정적 리스크와 부정적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올해 경제 및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1) 성장 약화 리스크, 2) 통화 정책 리스크, 3) 재정 정책 리스크 등을 주요 리스크로 예상한다.

먼저 글로벌 경제는 성장 약화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한국 및 글로벌 경제는 올해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연초부터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병으로 특히 중국과 한국의 성장률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타격을 받았던 중국 경제가 올해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으로 5% 초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감세정책 효과 약화와 트럼프 정부의 정부부채 확대에 따른 재정정책의 한계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주요국 성장이 약화된다면 성장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이 부정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큰 반면 통화 정책은 긍정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보다 강하지 않은 경제 성장은 예상보다 강한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은 지난 1월 FOMC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했다. 그러나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의 감세정책 효과 약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약화시키고,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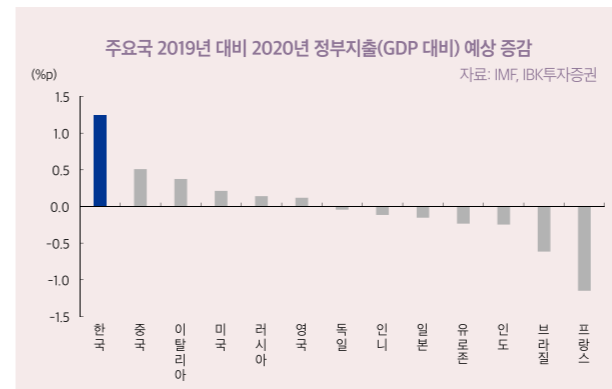


물가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재정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 압박을 강하게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 전망치 컨센서스는 동결이지만 한국은행은 저물가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한국 GDP 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 정책 리스크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재정준칙(재정적자 GDP의 3% 이내, 정부부채 GDP의 60% 이내로 제한), 미국은 감세정책으로 인한 정부부채 확대 등으로 재정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은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올해 여타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한 재정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과거 예상보다 약한 경제 성장과 예상보다 강한 경기부양책에 따른 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 이상 해당국 자산의 수익률은 긍정적이었다. 2019년 미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유례없던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돋보였고, 달러화 자산 수익률도 높았던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각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여력과 의지가 자산별 투자 매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강한 재정정책을 계획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원화 자산의 투자 매력이 높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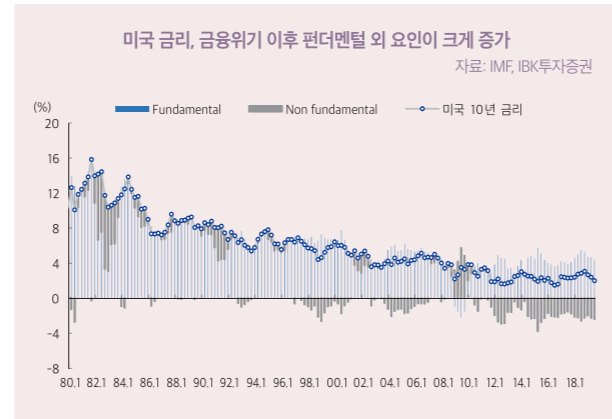
통화정책 컨센서스의 변화

채권시장에서 통화정책 기대감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론적으로 채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통화정책 기대감이 펀더멘털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더 이상 금리를 피쳐 방정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연유는 성장률 수준에 있다. 기술 발전과 인구의 변화, 산업의 포화 등으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까지 평균적인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그만큼 경제가 가지는 변동성이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술의 혁신이나 과거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막강한 신흥국이 등장하지 않는 한, 성장률의 의미 있는 상승도 어렵다. 결국 '성장률'로만 판단하면 금리는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이 2019년 금리 하락을 이끌었던 주된 요인은 펀더멘털 부진 장기화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미국을 필두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자산매입 등 완화정책이 얼마나 더 강화될지 점치며 금리는 빠르게 하락했다. 2019년 4분기 이후 이러한 기대감이 약화되며 금리는 반등하기 시작했지만, 하필 1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금리 상승은 이내 꺾였다. 전염병이라는 단기적인 리스크는 생각보다 큰 결과를 낳는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그 한두 달 여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에 수반하는 소비활동이 제약된다. 다행히 이런 방식으로 줄어든 경제활동은 1분기가량 지나면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되지만, 1년 중 1분기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연간 경제지표를 둔화시키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거 메르스와 사스 등을 겪으며 체득한 경험으로 경제지표 둔화를 만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게 된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행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생겼으며 미국 역시 기간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재정정책은 시간이 걸리거나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통화정책이다. 코로나가 지나간 시간은 짧을지 언정,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 펀더멘털 자체가 크게 변하거나, 의미 있게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금융시장에서는 정책의 스탠스에 더욱 민감해진다. 이번 사태 이후 미국이나 중국,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부양 정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자명하므로 금리는 또 다시 생각보다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항상 반영하지 않은 리스크는 그 절대적인 크기와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에 괴리가 있다. 애초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사실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2020년의 통화정책 기대감도 그런 것 같다. 2019년 시행된 완화적 통화정책의 규모가 2020년에 시행될 규모보다 압도적으로 크겠지만, 2020년은 기준금리 동결 베팅이 컨센서스였기 때문이다. 2분기는 통화정책에 대한 컨센서스가 변화하고, 이를 실제로 확인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금리의 반등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빠른 기준금리 인하가 향후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시장의 컨센서스 형성으로 금리 상승을 불러올 수 있겠다. 하지만 그마저도 2분기 미국의 통화정책 가능성과 6~7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등 대외 불안감으로 금리 상단은 연초 금리 고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리스크 이후 반등하는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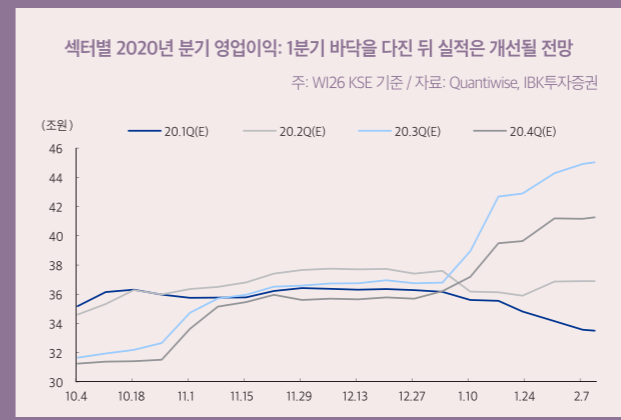
2분기에는 단기 리스크로 인한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완만히 상승하던 증시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인해 조정을 받았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연초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

과거 발생했던 메르스, 사스 등과 비교하면 치사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나 확산속도가 훨씬 빨라 회복하고 있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메르스와 사스는 결과적으로 단기 리스크 요인이었으며 전염병으로 주식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은 뒤 펀더멘털에 따라 지수 방향성이 결정됐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추경 편성 등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의 성장을 반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하며 지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단기 리스크 이후 지수 상승을 예상하는 만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2월 3일 중국 증시 개장 이후부터 시장 흐름이다. 외국인도 이전과 같이 대체로 순매수했으며 그 중심에는 IT가 있다. 업황 개선 및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살아있는 모멘텀 등으로 주도주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을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책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따라서 유동성 장세는 이어지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리스크 완화로 다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살아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리스크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경기 둔화는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동성과 환율은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단기 리스크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펀더멘털 흐름을 바꿀 정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연 효과, 정부의 재정 정책 등으로 경기 둔화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소비의 활성화, 춘절 연휴로 인한 휴업(평년에도 춘절 이후 가동률이 높아지는 데 2~3주 소요) 등으로 예상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풍부한 유동성 공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레벨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나 반도체, IT HW, IT SW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IBK투자증권은 상반기에 완만한 경기 반등과 함께 주식시장 역시 고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우려,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은 상존한다. 하지만 펀더멘털의 개선 흐름 지속,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금은 변동성이 있지만 실적이 양호한 섹터, 개별 모멘텀이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다. 기본에 충실한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한다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WIN CLASS

봄나들이를 부르는
예술의전당 공연·전시

예술의전당에서

봄을
맞이하러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나들이에 나선 향춘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을 맞이해 예술의전당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WORDS. 정재림

<11시 콘서트>



지휘자 에블리노 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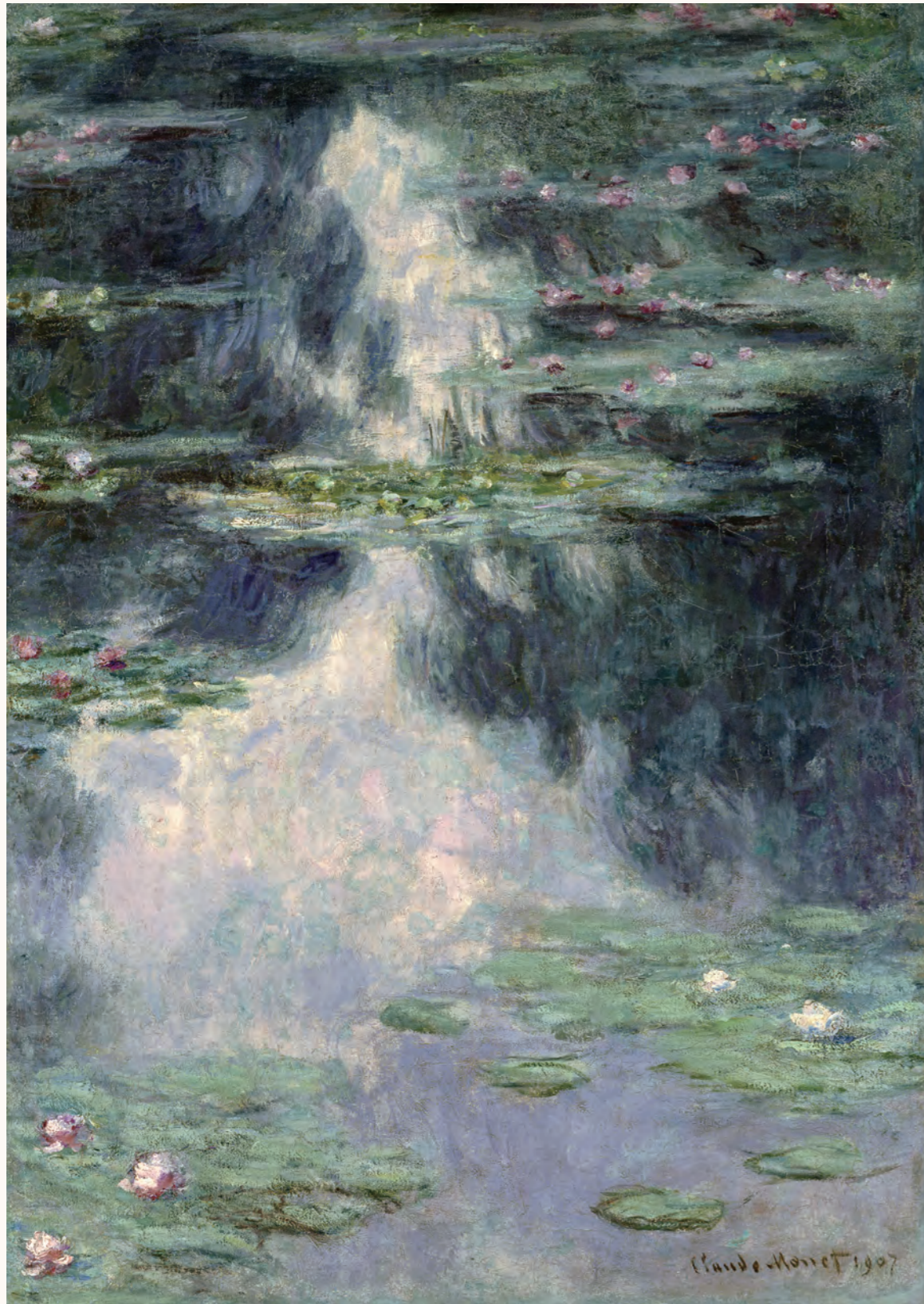
테너 정호윤

예술의전당이 자랑하는 대표 브랜드 콘서트

예술의전당을 대표하는 공연은 단연 <콘서트 오페라> 무대다. 2019년에 푸치니의 <토스카>를 공연하며 국내 오페라의 붐을 일으켰던 <콘서트 오페라>는 올해 3월 도니체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를 선보인다. 벨칸토 오페라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는 비극 오페라로 유명하다. 주인공인 루치아가 무려 20분 동안 홀로 광란의 아리아를 부르는 장면이 대표적인데, 새하얀 드레스에 질게 땀 검붉은 피는 루치아의 사랑과 고통을 상징한다.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루치아 역은 소프라노 제시카 프랫이 초청되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루치아의 연인인 에르가르도 역은 한국이 자랑하는 리릭 테너 정호윤이 함께하며 조연들의 탄탄한 앙상블도 놓칠 수 없는 감상 포인트다. 이 공연에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벨칸토 오페라 전문 지휘자인 에블리노 피노가 지휘를 맡을 예정이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반주한다. 3월에 이어 4월에는 예술의전당 20년의 역사를 가진 <교향악축제>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클래식 축제인 <교향악축제>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의 클래식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세종솔로이스츠와 국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16개의 교향악단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쟁쟁한 한국인 협연자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예술의전당에서 봄 내내 클래식의 향연에 푹 빠져보자.

소중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가치 있는 콘서트

예술의전당에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연도 마련되어 있다. 바로 월 1회 목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클래식 콘서트다.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11시 콘서트>가,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토요콘서트>가 각각 진행된다. 클래식 음악을 즐긴 뒤 예술의전당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 한 잔의 여유도 가져보자. 공연을 감상한 소감을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기에 딱이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다양한 장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티스트 라운지>도 열린다. 한 시간 동안 음향 좋은 IBK챔버홀에서 출연자들의 친절한 설명과 생생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이나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직접 들려주는 클래식 라이브를 영화 한 편 가격인 1만 원으로 들을 수 있다. 매달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참여해보자.



수련연못 Monet, Claude, Waterlilies, ~B90, 0020

1월부터 오는 4월까지 한가람미술관에서는 <모네에서 세잔까지 :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걸작展>이 진행된다. 모네, 고갱, 드가, 르누아르, 세잔까지 인상파 거장의 작품 106점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빛과 색채의 향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을 비롯해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에서는 의미 있는 미술 작품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1월부터 오는 4월까지 한가람미술관에서는 <모네에서 세잔까지 :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걸작展>이 진행된다. 모네, 고갱, 드가, 르누아르, 세잔까지 인상파 거장의 작품 106점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다소 거칠고 미완성된 페인팅 때문에 당시의 비평가에게는 비웃음을 받았지만, 이후 예술가들에 의해 인상파는 미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늘과 바다, 들판과 수면에 수놓은 빛을 따라 감상하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인상주의 작품과 작가들이 현대 예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 수 있다.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와 요즘을 한국 작가를 보고 싶다면 프랑스에서 스테인드글라스를 그리는 김인중 작가의 <빛의 화가 김인중> 전시를 찾아보자. 스테인드글라스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김인중 작가의 평생에 걸친 회화적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다.

또한 아시아 투어를 하고 있는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은 일본, 중국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전시다. 5명의 국제심사위원단이 심사를 거쳐 선정한 76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봄의 따사로움을 이어갈 다양한 전시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문화예술 축제의 행렬에 함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WIN CLASS



아발의절벽 에트레타 Monet, Claude, The Cliff of Aval, Etretat, 1885 ~L-B83, 006

Seoul Arts Center

<예술의전당 공연·전시>



예술의전당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일시 2020.3.12



한화와 함께하는 2020 교향악축제
기간 2020.3.31~4.22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기간 2020.2.13~11.12



신세계와 함께하는 2020 예술의전당 토요일콘서트
기간 2020.3.21~7.18



2020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라운지
기간 2020.2.26~11.25



모네에서 세잔까지 :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걸작展
기간 2020.1.17(금)~4.19(일) / 문의 02-6273-4242



빛의 화가 김인중(재불작가)
기간 2020.3.17(화)~4.4(토)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2019
기간 2020.2.6(목)~4.23(목)
문의 02-837-6611

*자세한 공연 일정과 시간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sac.or.kr)와 전화(02-580-1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뜨거운
이 도시의 3월,
브라질

3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국가로 변신하는 곳, 브라질 연방공화국. 1년을 고박 준비한 삼바 축제를 시작으로 그들의 강렬한 신앙이 드러난 건축물과 세계 축구 팬의 가슴에 불을 지핀 축구, 규모가 남다른 자연 풍경까지 빠짐없이 돌아봤다.

WORDS. 임은희

BRAZIL

— 01.
화려한 장식으로 무장한
리우 카니발을 보기 위해 세계인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브라질을 찾는다

— 02.
왕관을 닮은 브라질리아 대성당의 외관

— 03.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변화가에 있는
그래피티 그림과 NT 열차 사진



01

**카니발에 수도가 있다면 이곳!
삼바가 태어난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연방공화국(Federative Republic of Brazil)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국토를 보유한 나라다. 땅의 넓이만큼이나 강의 규모도 남달라서 브라질 연방공화국(이하 브라질) 북쪽에는 세계 최대 수량을 자랑하는 무려 6,300km 길이의 강이 흐른다. 이곳이 바로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강이다. 이 광활한 국토 중 세계인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인식된 지역이 있으니 바로 삼바 축제가 열리는 곳, 리우데자네이루다.

흔히 브라질에서 열리는 삼바 퍼레이드로 알고 있는 이 축제의 정식 명칭은 리우 카니발(Rio carnival). 매년 가톨릭의 금욕 기간인 사순절을 앞두고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4일간 밤낮없이 축제가 이어진다. 1년 중 단 4일 열리는 이 축제를 위해 인근 지역에는 수많은 삼바 학교가 설립되어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361일을 연습에 매진할 정도. 얼핏 기이하게 느껴지는 이들의 열정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리우 카니발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출발했다. 오래전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지키던 사순절 축제 문화가 아프리카 노예의 전통 타악기 연주와 춤을 만나 탄생한 것이 바로 삼바.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이민자와 노예들에게 카니발은 열정을 쏟아낼 유일한 행사였다. 그렇게 보통의 거리 축제에 불과했던 리우 카니발은 1928년 처음 설립된 최초의 삼바 학교를 시작으로 리우데자네이루 시청의 보조금을 받으며 체계를 갖춰왔다. 현재 리우 카니발 중 삼바 무용수들이 퍼레이드하는 거리인 ‘삼보드로모(Sambodromo)’는 총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대규모 밴드 ‘바테리아’와 함께 하는 퍼레이드는 한 그룹마다 4,000명의 춤추는 사람으로 이루어질만큼 큰 규모를 자랑한다. 해마다 이 퍼레이드를 위해 브라질을 찾는 관광객이 6만 명에 달한다. 무용수들의 화려한 춤 외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코스튬이다. 과거에는 공작새처럼 풍성한 깃털을 달거나 형광, 원색의 의상으로 눈길을 끌었다면, 최근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가면 등 세계 주요 인사의 가면으로 세대 풍자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한다.

오래전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지키던 사순절 축제 문화가 아프리카 노예의 전통 타악기 연주와 춤을 만나 탄생한 것이 바로 삼바.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이민자와 노예들에게 카니발은 열정을 쏟아낼 유일한 행사였다.

© CP DC Press

리우 카니발 입장료는 구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중간에 위치한 섹션은 3~6만 원, 구석에 위치한 구역은 8천 원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다만 구역의 번호가 짝수인 경우(8, 10, 12 등) 빈민촌 방향인 탓에 치안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미스터리 가까운 신앙,
브라질리아 대성당과 구세주 그리스도 상**

리우 카니발의 탄생 외에도 브라질에는 가톨릭의 영향력이 짙은 명물이 두 군데 더 있다. 브라질리아 대성당과 구세주 그리스도 상이다.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브라질리아 대성당은 강철 콘크리트라는 단단한 소재를 마치 플라스틱처럼 유연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 멀리서 보면 왕관처럼 휘어있는 16개의 강철 콘크리트 뼈대 사이는 푸른 하늘의 빛을 그대로 성당 안에 비춰주는 스테인드글라스로 채웠다. 성당을 설계한 오스카르 니에메에르가 성당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스테인드글라스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느끼기를 바라며 마련한 것은 입구다. 브라질리아 대성당의 입구는 독특하게 지하를 지나게 설계되어 있다. 덕분에 모든 방문객은 어두운 길목을 지나 찬란하게 쏟아지는 스테인드글라스의 빛을 만나는 감동의 순간을 느끼게 된다. 이 거대한 건축물이 국가 예산으로 지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브라질에서 가톨릭이 지닌 위상을 가늠할 만하다. 브라질에는 가톨릭과 관련된 세계 7대 미스터리도 있는데 바로, 리우데자네이루 코르코바도산 정상에 세워진 구세주 그리스도 상이다. 브라질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1931년 완공되었다는 이 그리스도 상은 높이 38m, 양팔의 길이 28m, 무게는 무려 1,145t에 달한다고. 신체의 각 부분을 따로 제작한 후 결합했다고 하지만, 약 100년 전의 기술로 산 정상에 이만한 규모의 예수상을 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리장성, 마추픽추 등과 함께 세계 7대 미스터리로 불리고 있다.

02



03





04

— 04.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구아수 폭포의 절경

— 05.
팡자아수카르 산에서 바라본 풍경

— 06.
브라질의 축구 영웅 펠레

— 07.
마라카나 경기장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항공 풍경.
마라카나 스타디움에서 2016년 올림픽 개막과
폐막식이 열렸다

— 08.
에스카다리아 셀라론은 칠레 예술가 셀라론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타일로 만든 계단이다.
알록달록한 타일이 멋스러워 관광객의
인기 명소로 사랑받는다

정상에서 저 멀리 빛나는 구세주 그리스도 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감상 포인트 중 하나. 이 산은 워낙 높이가 낮은 데다 오르는 길도 험하지 않은 편이지만, 정상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가 준비되어 있어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편하게 오를 수 있다.

05



© Diego Grandi

**월드컵 우승만 5번,
펠레의 고향 브라질**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브라질 축구를 본 적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5번(1958, 1962, 1970, 1994, 2002년)의 우승을 차지한 브라질. 이 어마어마한 축구 왕국에는 월드컵에서만 무려 77개의 골을 기록한 전설의 사나이, 펠레가 있다. 축구 왕국 브라질이지만, 시작은 미약했다. 1930년 첫 번째 월드컵에서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에 밀려 기 한 번 제대로 퍼지 못했다. 심지어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초반 10년 이상 세계 축구 대회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다.

이후 1950년 브라질 월드컵으로 돌아온 이들은 순식간에 우승 후보로 점쳐지는 강력한 팀을 꾸려냈으며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 혜성처럼 등장한 17세 소년 '펠레', 1962년 소아마비로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르고 지능은 10세 소년에 불과함에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가린샤', 현대 축구 최고의 스트라이커 '호나우두' 등 걸출한 선수를 배출하며 황금기를 맞았다. 다섯 번째 우승을 거머쥔 2002년을 기점으로 슬럼프에 빠져 2006년, 2010년의 올림픽에서 8강전 탈락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지만, 리드미컬한 축구 스타일로 세계인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브라질의 전성기를 기다리는 축구 팬은 아직 건재하다.

**고요와 역동성을 모두 갖추다,
브라질의 대자연**

어디를 가도 열기 가득한 브라질. 이 나라에서 고요하게 대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팡자아수카르 산(pao de acucar)에 올라보자. 구세주 그리스도 상이 있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해발 396m의 이 산에 오르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곳의 항구 중 하나로 꼽히는 리우데자네이루 항은 물론, 산투스두몽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호젓한 모습도 바라볼 수 있다. 정상에서 저 멀리 빛나는 구세주 그리스도 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감상 포인트 중 하나. 이 산은 워낙 높이가 낮은 데다 오르는 길도 험하지 않은 편이지만, 정상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가 준비되어 있어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편하게 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악마의 목구멍으로 불리는 곳, 이구아수 폭포다. 거대한 규모와 힘찬 물줄기 때문에 우비를 입은 채 찾아가도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라는 이곳은 마치 세계를 빨아들일 것만 같다는 뜻에서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폭포를 통해 쏟아져 내리는 물의 양은 초당 무려 1천 톤에 달하고 폭포의 폭 역시 나이아가라 폭포 2배에 달할 만큼 거대하다. 덕분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스벨트가 이구아수 폭포를 본 후 "아,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쩌면 좋아 (Poor Niagara)"라며 탄식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카니발, 축구 그리고 건축까지. 브라질이 뿜어내는 폭발적인 열기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군다. 새해의 결심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하는 3월, 모든 순간을 완전히 연소하는 브라질 사람들을 보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WIN CLASS



06

© A RICARDO



07

© marchello74

08



© jazjilma

결혼 후 '자신'보다는 '가족'이 중심이 되어버린 늑대부인.
젊은 날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꿈은 자유로운 삶이었는지도 모른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그녀는 때때로 지난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은 늑대부인이 다시 한 번 자신의 진가를 찾을 수 있을까?

EDIT. 김효정

열정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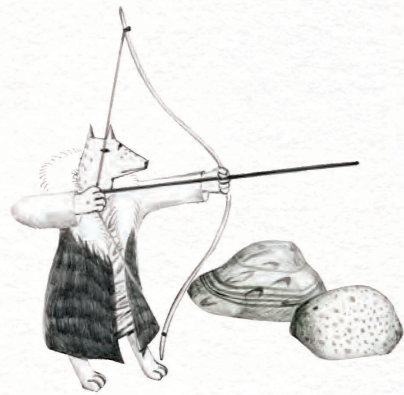
L부인과의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요?

그냥 L 부인이라고 불러주세요.



L부인,
결혼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음, 저도 한때는 잘나가는 사냥꾼이었어요.
먹잇감을 정하면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었죠.
그리고 결혼 후에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지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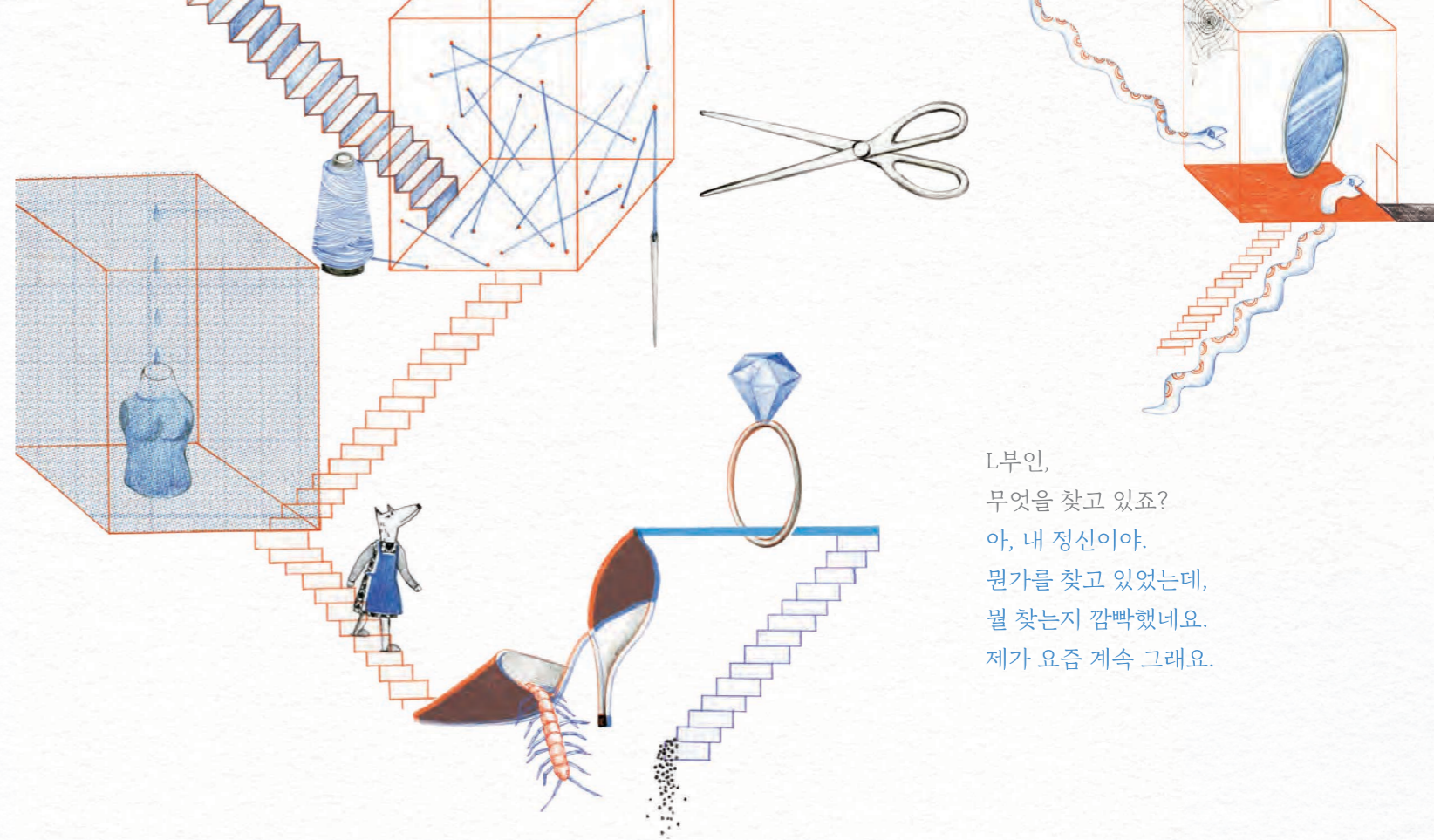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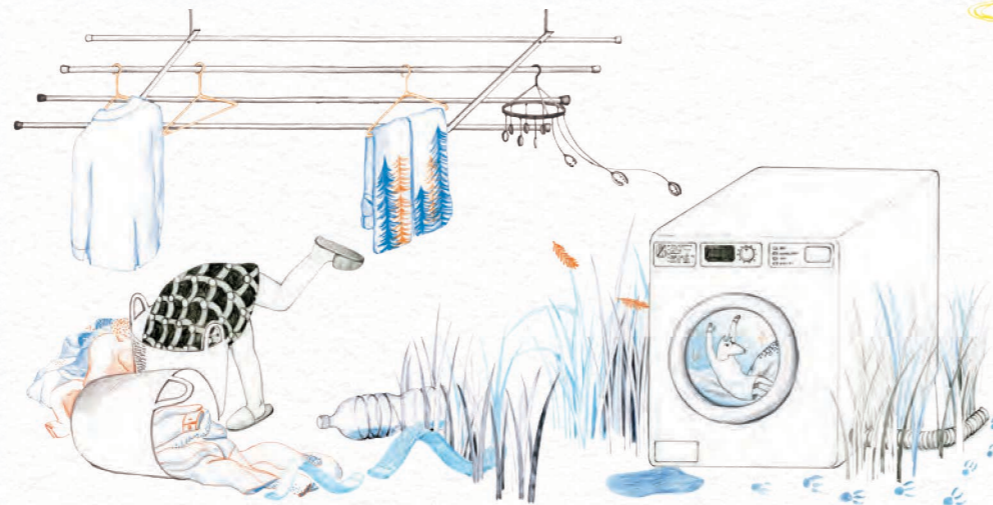
아이를 낳은 후 그만뒀어요.

강의 요청은 계속 들어왔는데,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었죠.

매일 밤늦게 들어와야 했고요.

그리고 일 년, 이 년이 지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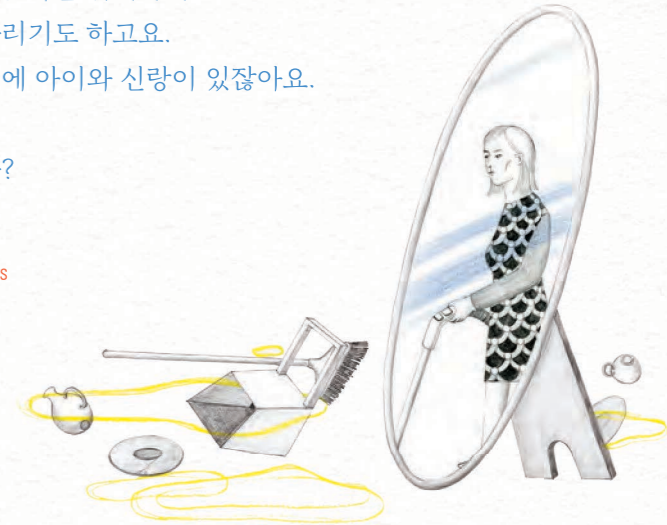
이제 강의 요청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L부인,
무엇을 찾고 있죠?
아, 내 정신이야.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뭘 찾는지 깜빡했네요.
제가 요즘 계속 그래요.

다시 숲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가끔은 꿈속에서 숲속을 뛰어다녀요.
빨간 망토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래도 지금은 옆에 아이와 신랑이 있잖아요.
아, 잠시만요.
그게 어디 있더라?

찾았다! WIN CLASS



<L부인과의 인터뷰>
글 · 그림. 홍지혜 / 옛눈복스

"나는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아니,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늑대부인은 오늘도 바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집안일은 뭐 하나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없다. 늑대부인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다시 꿈꿀 수 있을까?" 결혼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2월 자산시장 전망

주식시장

국내증시 전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으로 중국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상반기 국내증시는 2,000pt ~ 2,300pt 사이의 좁은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해외증시 전망

(선진국) 미국증시의 경우 견고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표결 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도 낮아져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기대되는 반면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및 독일증시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

(신흥국) 중국 제조업체들의 생산활동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홍콩 증시는 장기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예상됨. 유가 및 산업용 금속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 브라질증시 또한 하락추세를 유지할 것

채권시장

국내 채권시장 전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우려로 인해 채권금리는 급락하여 3년, 5년, 10년 국고채 금리는 각각 1.30%, 1.40%, 1.60% 까지 하락함. 상반기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금리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채권금리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해외 채권시장 전망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와 유가하락에 따른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 환경이 글로벌 저금리를 지탱해 줄 것으로 예상됨. 단기 금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 발생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상반기 글로벌 채권가격 강세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이달의 추천펀드 ONE-PAGE 리포트(2020년 2월)

공격투자형 2등급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 주식형
키움글로벌밸류터너티브 혼합, 재간접형

적극투자형 3등급

유리글로벌거래소 주식형
IBK플레이낸바닐라 혼합, 재간접형
IBK코스피200인덱스 주식형

위험중립형 4등급

한국투자다이나믹헤지인컴 채권, 재간접형
신한BNPP글로벌단기채 채권혼합, 재간접형

안정추구형 5등급

우리G-PIMCO글로벌투자등급 채권, 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 채권형
유진챔피언공모주 주식혼합형

안정형 6등급

우리하이플러스 채권형
유진챔피언단기채 채권형

■ 투자성향 ■ 펀드위험등급

판매사 **IBK기업은행**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지 고민이라면?

토지보상, IBK와 함께 의논하세요



국세청 및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세무·부동산 전문가들이
토지보상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대표전화 (세무) 02-2031-5700, 5449 / (부동산) 02-729-7189, 6954

• 토지보상 관련 세무·부동산·금융 컨설팅 제공

- 토지보상 주요절차, 사후 관리 포인트, 상속과 증여에 따른 절세전략 등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전문가 상담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운영방안 수립지원 등
- 전국 18개 WM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종합자산관리

• 기타혜택

• VIP행사 우선초청 기회 제공

사랑나눔음악회, Private Top 클래스, WIN CLASS콘서트 등

• 우수고객 특화서비스 제공

경조사 지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대행, 증여신고 무료대행 등

※본 서비스는 별도 기준에 따라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4077호 (2019.08.19) 게시기한 : 2020.08.31 출금번호 : EP26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거래접점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0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유흥업권 위반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